

# 황.토.가 되면 변신한다! 우리는 축평원 그레이더스~

고객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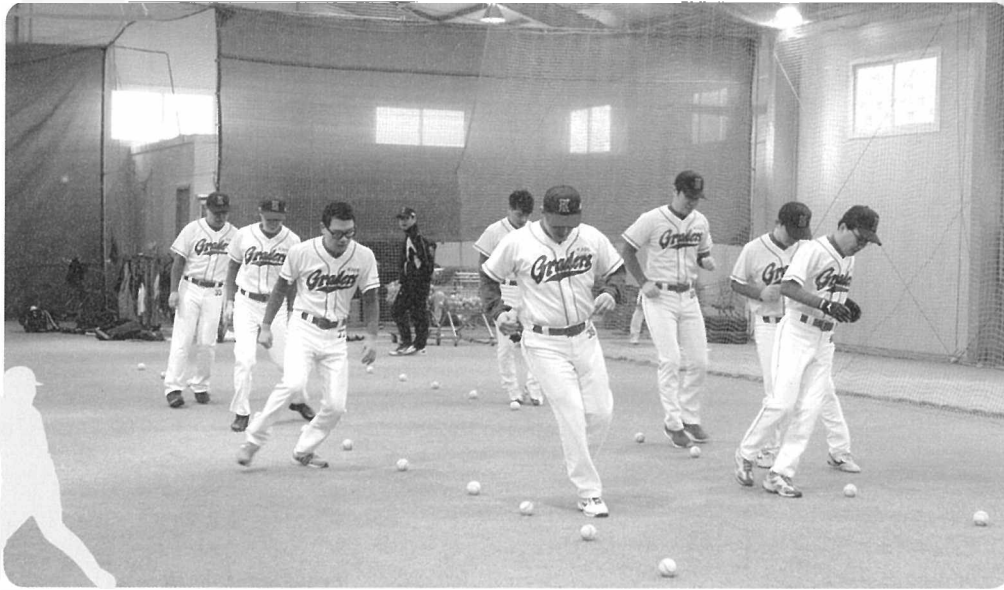
때는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오전. 일주일의 피로에 찌든 직장인들에게는 '황토(황금 같은 토요일)'라는데, 이 황금을 똑같이 보고 분연히 나선 이들이 있었다. 풀풀이 스판이 찰진 의상을 맞춰 입고 늦겨울의 갑바람과 싸우던 이들, 삼팔선 한반도 가르듯 빨갈고 파란 벨트를 졸라 맨 이들의 이름은 축평원 그레이더스(Graders)였다.

날씨는 맑아 햇살이 쨍했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낮았던, 최저 -7℃ 최고 4℃라던 이날! 이 한 몸 굴릴(?) 곳을 찾지 못해 헤매던 축평원의 남자 직원 수명이 조치원 별관 어딘가에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세종리틀야구장. 정보화시대에 포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내비도 쉬 찾지 못하고 헤매던 곳이다. 긴 시골길을 한참 지나 웬 공장 안쪽에 있는 임시구조물

이기에 아는 사람도 찾아오기 힘든 장소다.

잠시 설명하자면, 축평원 그레이더스는 대전충남 지원의 소프트볼 동아리와 충북지원의 불사조 야구단에 그 뿌리를 둔다. 2013년 말 창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렀다. 2016년 현재 정회원 14명, 준회원 3명 총 17명이 소속돼 있다. 회원들의 순수한 자비로 한 회비를 주로 운영되며 가끔 소액의 회사 지원이 있다.



‘그레이더스’라는 이름부터가 회원 대상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자발적’ 조직이라는 성향이 뚜렷하다.(참고로 그레이더스는 예전 전국 1~3위 평가사를 선정해 시상했던 ‘탑 그레이더스(Top Graders)’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내부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명칭이다.) 심지어 이날 모임은 열혈 회원 8명이 각자 자비를 내고 참가한 동계훈련이었다.

그레이더스는 작게는 축평원의 야구동아리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세종연(세종 중앙부처 야구연합회) 리그 소속이다. 준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는데, 올해는 3월 12일(토) 개막이다. 보통 3월에 개막해 11월 폐막한다. 그리고 12~2월은 이날 모임처럼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1년 스케줄이 짝 차 있다.

축평원 그레이더스는 지난해 4승 7패를 기록하며 12개 팀 중 리그 8위의 성적을 남겼다. 창단 후 첫해인 2014년 성적이 ‘무승’이었기에 2015년의 성적은 ‘무려’라는 수식까지 붙여 설명할 만큼 의미를 부여한다. 이날 훈련은 이 ‘무려’를 한 해 더 이어가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대동단결해 진행됐다.

물론 머리와 몸은 따로 노는 법이기에 처음부터 모든 일이 생각처럼 수월하지는 않았다. 몸 풀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추운 날씨에 몸이 아직 덜 풀린 탓인지 점프로 한 번 오간 후 다들 뒤쪽으로 쑥 들어갔다. 지극한 겸손함에 서로 선을 내어주려 하다 보니 앞서 나서는 이가 좀처럼 없었던 것이다.

“이거 봐라. 겨울에 운동 안 함 사람이 이렇게 보니 딱 나온다.”는 코치의 고언에 다시 심기일전한 정예전사 8명은 이후 찬 바닥에 몸을 구르고 날아오는 공에 몸을 날리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순식간에 숨이 차오르고 계절을 이긴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의심 많은 한국인들은 슬슬 의혹의 씨앗이 고개를 든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코치가 촬영 협조를 위한 모션 세팅을 하거나 직접 카메라를 잡기까지 할 만큼 사진을 잘 알기에 의혹이 확신이 되려던 찰나, 선수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레이더스 주장 나강호 홍성출장소장은 “배가 산만큼 나왔었는데 두 달 만에 속 들어갔다.”며 배를 두드렸다. 박해천 대전충남지원 이력팀장의 “연습 강도가 더 심할 때도 있다.”는 발언이 힘을 더했다.

그런데 사실 몸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사방팔방으로 훌훌 공이 날아 들어오는 데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할 수 있을까? 좌로 우로 몸을 날리지 않을 수 없다. 운동장에 나와서는 모든 걸 다 잊고 야구에만 몰두한다고 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여기 와서 싹악 풀고 간다고까지 하는데 열심이지 않은 게 이상하다.

자외에 의해 나선 일이고,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발전 속도도 빠르다. 그 대표적 인물로 꼽힌 사람이 황희태 과장. 훈련장에 우연히 함께 했던 농림부 직원이 “종종 보는 데 정말 많이 발전했다. 힘이 좋으니 특히 타격이 정말 좋다.”고 추천했다.

아직은 시설물 뒤에 숨어 훈련 과정을 지켜보려는 필자에게 코치가 “저 직원이 공이 좋지 않으니 피하라. 거기 숨어 있다가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할 만큼 빈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이전의 그는 만년 후보를 면치 못하던 실력이었는데 홍성으로 발령받아 간 후 별도 훈련을 받으며 주전급으로 거듭나게 됐다. 실제로 따로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진지한 모습이 누가 봐도 당당한 선수였다.

물론 모두가 선수급으로 날아다니지는 않는다. 이날도 자세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구명설에 휩싸인 사람, 본인은 부정하지만 만인이 ‘전날 한 잔 한 것 같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개인 보호차원에서 “난 활력을 주기 위해 그런 거다.”고 해명했던 구명설, 포지션 ‘주전자’ 의혹의 주인공은 인재개발팀 야사에 물어두겠다. 아울러 주자 만루에 도루를 해 3루 주자를 아웃시키는 야구단 최대 에피소드를 만든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전략기획팀 L모 과장님,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이 글을 읽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3월, 새로운 시즌의 개막과 함께 축평원 그레이더스도 활동 새 막을 열게 됐다. 15명이라는 적은 듯한 인원에게 이어질 긴 시즌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게임은 9명이 하니 숫자가 적어도 충분하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벤치 지킴이 가는 경우가 많아져 포지션 싸움이 생기니 지금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선수들은 의욕 충만! 열의 만발! 이었다. 달리 열혈투사, 정예회원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레이더스는 “요 몇 년 새 신입직원도 많이 들어왔고, 야구에 관심 있는 직원도 많은 것 같더라.”며 핑크빛 단꿈을 꾸고 있었다. 퇴근하고 개인적으로 야구레슨 받는 직원들도 많다 할 만큼 열성이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봄바람 속에 더욱 활기를 더할 축평원 그레이더스의 2016년 시즌이 어떤 성과를 남길지 기대된다. **축평원**